



binoculars: representing the two Koreas
looking forward to a united future

마음의 통일: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시선

주최: ENoK, 재미탈북민연대(NKUS)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지역 협의회

ENoK 은 재미탈북민연대와 함께 2013년 6월 21일과 22일 1박 2일에 걸쳐 “마음의 통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행사의 가장 큰 목표는 “마음의 통일”이었습니다. ENoK 은 본 컨퍼런스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사상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하고 포용하는, 출신 배경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별 받지 않는 한반도 사회를 꿈꾸길 바랐습니다. ENoK 은 한반도를 향한 사랑이란 공통점을 품은 남한, 북한, 미국 등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NoK 은 ‘문제풀이 활동’을 컨퍼런스의 가장 큰 핵심으로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문제풀이 활동’은 통일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들을 남한, 북한, 미국의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 각 분야 별로 준비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토론하여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다른 배경들로 인해 비롯된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여 조율하려는 자세를 배우고, 서로간의 다름으로 인해 형성되어 왔던 편견과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주최측의 비전이었습니다.

‘문제풀이 활동’뿐만 아니라,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통일 사례들을 연구하신 전문가분들을 컨퍼런스의 초청 연사로 모셔서, 두 국가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에 맞는 새로운 통일 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1박 2일이라는 기간 동안 합숙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ENoK 에서 제공한 컨퍼런스 티셔츠를 입고 활동을 하면서 (의.식.주.) 서로 더 가까워질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

이틀에 거친 본 행사에 총 43명이 참가자로 참여했습니다. 41명의 참가자가 6월 21일 금요일에 진행된 초청 연사들의 강연에 참석했고, 32명의 참가자가 6월 22일 토요일에 진행된 ‘문제풀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30명의 참가자들이 두 행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Washington DC 지역 출신이었고, 참가자의 4분의 1 정도가 다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19명의 한국인, 10명의 북한이탈주민, 9명의 한국계 미국인, 5명의 현지 미국인, 총 43명이 “마음의 통일”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중 4분의 1 정도가 이전에 북한이탈주민들과 교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형제들 ☺



시카고 지역 참가자들



첫째날, 교수님들과 함께

과거 분단국가 사례

“마음의 통일” 컨퍼런스가 ‘문제풀이 활동’을 가장 주된 요소로 다뤘지만, 주최측은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람된 ‘문제풀이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행사의 첫째날 과거 두 국가의 통일 케이스 전문가 두 분을 초청 연사로 모셔 보다 더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독일식 통일 모델을 기반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고려했을 때, ENOK 또한 적화통일보다는 남한 위주의 흡수 통일이 당연히 더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저희가 보고 싶은 통일 한반도, 저희가 꿈꾸는 통일 한반도를 상상하고 자세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는, 지극히 가능했던 일도 그저 가능성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주최측은 저희 젊은 세대가 기존의 편협된 시각으로만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한에서 벗어나, 정말 저희가 원하는 통일 한반도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 통일이 된다면, 땅덩어리가 두배가 되는 것을 따라 남한에 존재하는 문제가 두배로 증가 할 것이며, 또한 통일에 따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통일 한반도 모델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수직 관계가 아닌,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서로의 '위'에 있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통일 한반도사회를 꿈꿀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과 소망을 갖고 주최측은 컨퍼런스를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함께 ENOK 은 독일의 통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사례도 토론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더 창조적인 한반도 통일의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세력 중심으로 통일을 이룬 베트남의 경우지만,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는 점, 미국이 통일 과정에 상당부분 관여를 했다는 점, 독일보다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더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독일

먼저 독일 통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기 위해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llio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에서 Associate Professor of German and International Affairs 이신 Mary Beth Stein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Stein 교수는 대학에서 19, 20 세기 독일 문학과 문화 그리고 새로 창설된 “Berlin Before and After the Wall”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독일 전문가이십니다.





Stein 교수님은 통일 과정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은 파트너와 같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였으며, 쉽게 말해 작고 가난한 힘없는 동독이 크고 부유한 서독에 일방적으로 통합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독민과 서독민들 사이의 “마음의 벽”이라는 상호 괴리감이 통일의 큰 장애물로 자리했으며, 그러한 한계들은 미래를 대하는 태도, 가치관, 비전 등에서 극명한 차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Stein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회유책 및 해결책으로 원탁 토론, 시민 운동 및 피해자/가해자간 대화의 장 (예: 교회 내)등을 제시했습니다.

2. 베트남

Stein 교수님의 독일 통일 강연 이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llio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에서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이신 Shawn McHale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McHale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베트남,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시고 식민주의의 비교연구와 그에 따른 역사적 잔재를 연구하시는 전문가입니다.



McHale 교수님은 “승리자의 정의”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며,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승리에 너무 심취했다”며 “승리자들은 언제나 실수를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세력들을 강압적으로 사상교육을 시키는 재교육 캠프를 예로 들으며, 자본주의 세력들을 강압적이고 잔인하게 탄압했으며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대감이라는 서로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정치적, 사상적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동질감 회복과 진정한 화해는 정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같은 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활동들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교류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교류들이 “진정한”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cHale 교수님은 직접적인 대립을 겪지 않아 상대적으로 서로간의 갈등과 편견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향후 베트남의 진정한 통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의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풀이 활동

‘문제풀이 활동’은 본 컨퍼런스의 핵심으로 기획됐으며, 남북한이 통일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함께 구상하고 그려보고자 하였고, 또한, 통일과정 및 통일 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본 활동은 총 두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세션마다 다섯 가지 분야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두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각 지원자들이 열 가지 문제풀이 활동 주제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그에 따라 맞추어 그룹을 형성했으며 각 그룹은 5 명에서 8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현재의 남과 북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교육: 한반도 역사
- 복지: 통일 한반도 의료 보험
- 교통: 통일 한반도 교통 네트워크 개발
- 외교: 주한 미군 in 통일 한반도?
- 문화: “Saturday Night Live: ENOK” (코미디 스킷)

두 번째 세션은 남북 공동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 에너지 & 환경: 녹색 캠페인
- 국가 안보: 한민족의 정체성이란? (입국, 이민, 시민권)
- 경제: 재벌과 통일 한반도
- 사회: 통일 한반도와 여성 권리
- 정부: 헌법

각 그룹에는 1) 구체적인 상황, 2) 문제, 3) 역할, 4) 부가적 고려사항들이 주어졌으며, 미리 결정된 그룹리더의 지도하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문제풀이 그룹



복지 문제풀이 그룹



에너지 & 환경문제풀이 그룹

참가자 개개인들의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한반도를 향한 공통된 사랑 덕분에, ‘문제풀이 활동’이 참가자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훌륭한 해결책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한국계 미국인 참가자는 본 활동이 저개발국가를 도울 때 “모든걸 안다”라는 생각과 태도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및 지출

"마음의 통일" 컨퍼런스					
예산		지출			
보상액		보상액		보상액	
초청 연사 1	\$ 1,000	초청 연사 1	\$ 1,000.00	\$	-
초청 연사 2	\$ 1,000	초청 연사 2	\$ 1,000.00	\$	-
소계	\$ 2,000	소계	\$ 2,000.00	\$	-
컨퍼런스 룸 예약 (이틀)		컨퍼런스 룸 예약 (이틀)		컨퍼런스 룸 예약 (이틀)	
6/21/2013 4:00pm-10:00pm	\$ 350	6/21/2013 4:00pm-10:00pm	\$ 350.00	\$	-
6/22/2013 8:00am-10:00pm	\$ 550	6/22/2013 8:00am-10:00pm	\$ 550.00	\$	-
인건비	22%	인건비	22.00%	\$	0%
세금	10%	세금	6.9%	\$	3%
소계	\$ 1,208	소계	\$ 1,173.76	\$	34.04
AV 기기		AV 기기		AV 기기	
Presidential Podium MC	\$ 65	Presidential Podium MC + Screen	\$ 105.00	\$	(40.00)
분량 (기간)	2	분량	2	\$	0
인건비	22%	인건비	22.00%	\$	0%
세금	10%	세금	5.5%	\$	5%
소계	\$ 174	소계	\$ 270.29	\$	(95.83)
숙박		숙박		숙박	
총 숙박비용	\$ 528	총 숙박비용	\$ 696.15	\$	(168.15)
방당 가격	\$ 120	방당 가격	\$ 105.00	\$	15.00
분량	4	분량	6	\$	-2
세금	10%	세금	10.5%	\$	0%
소계	\$ 528	소계	\$ 696.15	\$	(168.15)
음식		음식		음식	
6/21/2013 석식 (1 인분)	\$ 40	6/21/2013 석식 (1 인분)	\$ 37.95	\$	2.05
6/22/2013 조식 (1 인분)	\$ 30	6/22/2013 조식 (1 인분)	\$ 29.95	\$	0.05
6/22/2013 중식 (1 인분)	\$ 30	6/22/2013 중식 (1 인분)	\$ 27.95	\$	2.05
분량 (명수)	40	분량 (명수)	40	\$	0
6/22/2013 오후 휴식	\$ 296	6/22/2013 오후 휴식	\$ 237.25	\$	58.75
음료 (1 인분)	\$ 5	음료 (1 인분)	\$ 4.95	\$	0.05
분량	40	분량	35	\$	5
간식 (12 개)	\$ 32	간식 (12 개)	\$ 32.00	\$	-
분량	3	분량	2	\$	1
인건비	22%	인건비	22.0%	\$	0%
세금	10.0%	세금	9.0%	\$	1%
소계	\$ 5,765	소계	\$5,413.95	\$	351.28
기타		기타		기타	
		티셔츠	\$353.00		
		폴더	\$85.00		
		인쇄 및 필기도구	\$193.75		
		항공편	\$519.60		
소계	\$ 1,000	소계	\$ 1,151.35	\$	(151.35)
합계	\$ 10,675	합계	\$ 10,705.50	\$	(30.01)

참가비

컨퍼런스 참가비는 개인당 \$20 였으며, 사전에 기부금을 모아 참가비가 부담스러운 지원자들에게 참가비 지원을 했습니다. 9 명은 행사 운영진으로서 참가비를 면제 받았으며, 총 34 명 참가자의 참가비인 \$680 이 모였으며, 그 중 7 명의 참가자가 참가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가비는 원래 행사 운영 비용에 쓰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2 주전 ENOK 은 본 행사의 공동 주최측인 재미탈북민연대(NKUS)로부터 탈북민 조씨(가명)가 강도의 폭력에 의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가비 전부를 조씨를 돕는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가비 \$680 은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 재미탈북민연대에 전달되었으며, 조씨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료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06.13.2013 Yonhap News

결론

ENOK 의 4 대 미션 중 하나가 바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이며 그 가치는 “마음의 통일” 컨퍼런스

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본 컨퍼런스는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협력함으로써 서로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마음의 통일” 컨퍼런스는 ENOK 의 *RealPal* 프로그램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alPal* 프로그램은 선생이나 후원자로서가 아닌 진정한 친구, 형제, 자매로서 탈북민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을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NOK 은 그러한 과정으로 함께 만들어간 서로간의 우정이 봉사자 “Pal”들과 탈북민들간 기존 존재했던 편견과 차별의 벽을 진정으로 허물 것이라 믿습니다.

Stein 교수님이 앞선 강연에서 “마음의 벽”을 언급했듯이, 정치적, 경제적 통합도 한반도 통일에 있어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남과 북을 나누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또한, McHale 교수님이 “베트남 통일의 전망은 젊은 세대들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듯이, 이와 같은 마음의 통일을 꿈꾸고 이루는 것은 차세대의 몫입니다.

